

漢文科 教育에서의 多文化 教育 方案

李 東 宰*

<目次>

- | | |
|---------------------|----------------------|
| I. 緒論 | IV. 漢文科 教育에서의 多文化 教育 |
| II. 多文化 教育의 背景 | V. 結論 |
| III. 多文化 教育과 漢文科 教育 | |

<국문 초록>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 移民者 등으로 총인구의 2%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에 국한된 정책으로서, 다문화 정책의 방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多文化란 사회의 소수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固有文化가 支配文化로 통합되기 보다는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교육은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寬容教育이며,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법을 배우는 人權教育이기 때문에 한문과 교육과 많은 관련성을 가진다.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準據는 한문과의 교육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한문과 교육 목표는 人權 教育, 反戰平和 教育, 生態環境 教育, 複數文化 教育, 國際理解 教育, 反偏見 教育, 世界化 教育 등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 國立 公州大學校 漢文教育科 教授 / leedj@kongju.ac.kr

그러나 현재까지 한문과 교육이 전통문화 교육에 초점을 두어,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문화의 固守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다른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民族, 他文化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문과 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에서는 세 가지 점을 유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첫째, 한문과 교육 내용이 ‘仁’과 같이 인간존중 사상과 이를 구현하는 ‘忠恕’와 같은 寬容教育을 통해 민주적 이상을 지지하는 평등 指向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역사에서, 金忠善과 같은 외국에서 이주하여 성공한 사례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외국에 나가 다른 문화에 적응하여 성공한 사례를 교육의 내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한문과의 교육 내용은 인권 존중의식과 평등 의식이 主流를 이루지만 일부 내용 가운데 兩性平等에 어긋나거나 ‘單一民族’같이 우리 민족의 배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排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한문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 문화의 多樣性和 異質性을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제어】 다문화 교육, 전통문화 교육, 인권존중, 관용, 단일민족

I. 緒論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외국인, 새터민 등 외국에서 유입된 인구가 총인구의 2%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隨伴된 이주 노동자들의 우리 사회의 문화와 情緒에 反하는 행위,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적응 문제, 새터민들의 사회 적응 문제, 결혼 이주 여성 자녀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에 국한된 정책으로서, 다문화 사회를 대처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란 다종족 및 多民族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少數民族이 가진 다양한 固有文化가 支配文化로 통합되기 보다는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단일 언어와 단일 민족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傳受보다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을 서로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을 찾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길들이는 적응교육보다는 다수자가 소수의 인종과 민족,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寬容教育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¹⁾을 말한다. 또한 다문화교육은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寬容教育이며, 사회의 그릇된 偏見이나 固定觀念에 대항하고 보다 평화로운 의사결정 방법을 배워 나가는 人權教育²⁾이기 때문에 한문과 교육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準據는 한문과의 교육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제7차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가운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人權教育, 反戰平和教育, 生態環境教育 등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한자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複數文化 教育, 국

1) 박상준,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사회과교육』 제47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p.37.

2) 박광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 수업방안」, 『윤리교육철학』 제7집, 2008, p.101. 참조.

제이해 교육, 反偏見 教育, 세계화 교육 등과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문과 교육이 傳統文化 교육에 초점을 두어, 민족의 同質性和 전통문화의 固守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단일 民族主義를 강조하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 문화를 차별하고 배척하는 情緒가 강했으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民族, 他文化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가 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문화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고, 이를 基底로 하여 다문화 교육과 한문과 교육의 목표가 어떤 相關關係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본, 한문과 교육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多文化 教育의 背景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외국인 인구가 총인구의 2%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轉移되고 있다.³⁾ 하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해 代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국가·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즉 이주 노동자들의 우리 사회의 문화와 정서에 反하는 행위,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적응 문제, 새터민들의 사회 적응 문제, 결혼 이주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單一民族과 單一文化에 기초하여 유지되

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http://www.immigration.go.kr>)에 의하면(2007.8), 장기체류 외국인인 1,000,254명이며, 이들의 국적은 중국(44%), 미국(12%), 베트남(6%), 필리핀(5%), 태국(4%),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었던 사회체제와 전통문화에 대한 혼란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들과 移住民들 사이에 민족에 대한 偏見과 差別, 다른 문화의 排斥과 같은 혼란과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나라에 정착한 새터민들은 비록 한민족으로 같은 외모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南北分斷으로 인해 수십년간 고립된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은 생활습관과 풍습, 언어의 차이 등으로 또 다른 차별과 갈등을 낳고 있다. 나아가 국제결혼으로 우리나라 사람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우리 문화에 따라 살고 있지만, 단지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고, 부정확한 언어 습관 때문에 생기는 정체성의 혼란과 이에 따른 갈등을 낳고 있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는 현실을 度外視하고 외국에서 유입되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편입되거나 이들과 혼인으로 낳은 혼혈인들을 단지 피부색과 외모, 언어가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이들의 문화를 편견을 가지고 본다면 인종차별 문제는 물론 문화적 갈등으로 장차 한국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기실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 새터민 등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언어 구사 능력의 취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혼란과 갈등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겪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다른 異質 文化를 접하면서 문화적 변용을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 갈 것이다.

文化變容이란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으로서 문화 적응 및 언어 습득 과정에서 개인의 가치관 및 자의식 등으로 소통체계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에는 捨得者와 사회 간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사회·심리적 간격(Social distance)의 정도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심리적 간격이 크면 클수록 습득자의 문화 변용 정도는 그만큼 낮아지며, 언어 습득자가 목적 집단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문화 변용하는 정도가 목적 언어 습득의 성취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 이들과 결혼하여 낳은 混血人 같은 다문화 가정 출신자들이 목표 집단에 대해 부정적 심리상태를

갖고 있다면 문화 적응력 및 언어 습득력도 그만큼 낮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변용 단계는, 첫 단계인 ‘여행자 단계’에서는 자국의 문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표 문화에 표면적 이해관계를 맺는다. 두 번째 단계는 ‘생존자 단계’로 목표 국가의 언어나 문화를 기능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단계로 문화 충격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이민자 단계’로 목표어의 유창한 사용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의 생활 체험을 통해 목표 문화권 구성원들의 감정을 내부자적 관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며 목표 언어를 원어민에 가깝게 구사하며 목표 문화에 거의 동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시민권자 단계’는 목표 문화권 구성원들과 같이 내부자적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단계이다.⁴⁾

다문화 가정을 구성하는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새터민 등은 문화 변용 단계로 보면,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생존자 단계’나 ‘이민자 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은 우리 문화에 대한 ‘높은 문턱’을 넘는데 사회적·심리적 갈등과 간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 나아가 학교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그로 인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각종 다문화주의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다문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 즉 결혼 이민자, 이주노동자 등의 증가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초·중등학교 취학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 강화 필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⁵⁾을 내놓았지만, 이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우리말과 전통문화를 배움

4) H.Douglas Brown 저·이홍수 외 역, 『외국어 학습·교습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2001, pp.215-217. 참조.

5)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2006.

으로써 단일민족에 기초한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가는데, 다문화주의 정책이나 다문화교육은 아직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라는 신화를 주입하고 韓國의 민족문화에의 동화, 즉 韓國化를 강요하고 있다.⁶⁾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단일 언어와 단일 민족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傳受보다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들을 서로 인정하며 共存하는 것을 찾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 교육은 외국에서 流入된 이주민들을 주류 사회에 길들이는 적응교육보다는 다수자가 소수의 인종과 민족,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寬容教育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사회의 기본 속성으로 받아들여 동일한 언어와 민족을 국가의 기본으로 삼는 것을 止揚하고, 하나의 사회, 혹은 하나의 국가 내부에 複數의 문화가 공존한다는 것을 긍정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학교교육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주류문화인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수자를 상대로 소수자인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과 이들과 결혼하여 출생한 혼혈인, 새터민 등의 문화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寬容教育이 더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多文化 教育과 漢文科 教育

우리나라의 교육은 “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陶冶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營爲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⁷⁾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 박상준, 앞의 논문, p.33.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의 하나인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단일민족에 기초한 전통문화의 전수보다는 여러 인종과 민족의 다양한 문화들을 서로 인정하며 공존을 모색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 새터민 등 이주민을 주류 사회에 길들이는 적응교육보다는 다수자가 소수의 인종과 민족을 이해하고 상생하는 관용교육에 초점을 두어야 함을 말한다.

인류공영을 위해서는 자국의 우월성과 가치를 최우선시 하는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즉 자신의 민족과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종교, 언어와 생활 습관 등의 차이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야 만이 진정한 인류 공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도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 세계적 시민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의미한다.⁷⁾

문화란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특정 집단이 오랜 생활 경험 과정을 통해 공유하게 된 내적 사고방식과 외적 행동 등을 일컫는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은 각 민족 고유의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하나의 민족과 문화가 국가의 기본적인 요소였었다.

전통문화란 생활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형성·발전시켜온 것이며, 그들의 생산 활동과 생활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타 집단의 문화와 구별되는 그 집단만의 특색을 갖춘 문화이다. 전통문화는 그들의 집단 성원들에게 생활의 질서와 정서를 잡아주어 생활에 안정감을 주며,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심어주어 자아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어떤 한 민족의 문화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는 외래문화를 수용하기도 하고 전통문화에 수정을 가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전통문화의 근간을 살려서 가꾸어 가는 것이다. 강력한 외래문화에 압도

7)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2007, p.20.

8) 교육과학기술부, 『제7차 개정 한문 교육과정 고등학교 해설』, 2009, p.34.

되어서 전통문화가 쇠퇴, 소멸되어가는 현상은 참다운 문화의 계승·발전이라고 할 수 없다.⁹⁾

전통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은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전통문화를 과거에 형성되어 현재에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모습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전통문화는 옛것을 그대로 본떠서 반복하는 것으로 여기고, 교육도 과거에 형성되어 고정된 문화유산을 그대로 전수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單一文化主義的 觀點’으로 전통문화를 단일민족국가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단일민족에 기초하여 형성된 동질적인 전통문화를 가장 우수한 문화라고 믿고, 그런 전통문화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관점에서 전통문화교육은 한 민족의 전통문화를 획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주류 사회에 同化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문화교육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태도를 형성시킨다.¹⁰⁾

둘째는 전통문화를 현재에 맞게 변형되거나 재생산된 모습으로 지속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多文化主義的 觀點’으로 전통문화를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나 국가의 다양한 문화요소들이 融合되어 발전되고, 현재 사회에 맞게 再解釋되고 재창조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 관점은 다양한 인종, 민족,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중요시 여기고,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기초한 동질성보다는 여러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양성과 이질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따라서 전통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문화의 상호 인정과 공존을 추구한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은 여러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동등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전통문화교육

9) 교육과학기술부, 위의 책, p.34.

10) 박상준, 앞의 논문, p.34. 참조.

도 문화의 이질성과 다양성의 측면에서 여러 인종이나 민족의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포용하고 공존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¹¹⁾

다문화란 미국과 같이 多種族 및 多民族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소수 종족 및 소수민족이 가진 다양한 고유문화가 지배문화로 통합되기 보다는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주류사회의 고유문화 속에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문화의 고유성을 존중해 주고 함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 교육이란 세계화 시대에 따른 다양한 문화, 인종, 사회에 속한 집단들이 각기 자신의 고유 언어와 문화를 지키면서 주류사회와 공존하며 사회에 다양한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이를 가르치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육은 ‘문화간 이해를 위한 다문화 교육’, ‘문화적으로 응답하는 교육’, ‘二重文化 教育’, ‘교육의 문화적 多元主義’, ‘인간 경험으로서의 다문화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複數文化 教育, 국제이해 교육, 反偏見 教育, 세계화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서 발전하였으며, 人權教育, 反戰平和教育, 生態環境教育 등과도 개념적인 외연을 나눌 수 있다.¹²⁾ 즉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 민족, 性, 그리고 사회적 계층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긍정적 태도와 인식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려는 의도를 포함하며, 문화적 相對主義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他文化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¹³⁾

이를 정리하면, 다문화 교육이란,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受容하는 寬容教育, 둘째, 인간존중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人權教育, 셋째, 자연과 공존을 모색하는 環境保全 教育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한문과에 적

11) 박상준, 위의 논문, p.35. 참조.

12)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pp.249-253. 참조.

1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의 책, p.218. 참조.

용해 본다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관용교육, 인간존중의 인권교육, 환경 보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제 이해 교육으로서의 국제 이해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 되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7차 교육과정에서는 外國語科와 社會科를 중심으로 國際理解, 多文化 理解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이 수용되었으며, 이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교육이 全教科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었다. 즉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35개 범교과적 학습 주제 가운데 하나로 다문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고,¹⁴⁾ 나아가 교과서의 개발 지침에도 이를 반영하여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였다.

한문과의 교육목표에 보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인권 교육, 반전평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등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며, “한자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복수문화 교육, 국제이해 교육, 반편견 교육, 세계화 교육 등과 관련을 가진다.

IV. 漢文科 교육에서의 多文化 教育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교육목표에 “우리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와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라고 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강조하

14)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2007, p.20.

고 있다.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상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감과 동시에 인류의 보편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을 기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간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¹⁵⁾을 목표로 한 것이다.

2007년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문과의 교육목표 가운데,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와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문화와 관련된 교육목표이다. 이는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것’과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寄與하려는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한문과 내용영역의 ‘한문’영역의 소영역인 ‘문화’ 영역에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내용 요소를 두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 교육과 함께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전통문화 교육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5)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2007, p.25.

한문과 교육에서는 전통문화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寄與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다문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전통문화를 강조한 배경을 살펴본다. 한문과의 교육목표에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라고 제시하였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에서는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유난히 강조해 왔다. 이는 한문과 교육이 갖는 교과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서 전통문화교육은 단일문화주의적 관점에서 한민족이 형성해온 전통문화를 그대로 전수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주입하고 그것에 同化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¹⁶⁾ 이는 日帝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광복 이후 외래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전통 문화를 잃게 되면 민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고 삶의 의미를 喪失할 것이라는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내용도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부각시키기 위해, 전통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얼과 지혜를 되살려 새로운 민족 문화를 창조하는 바탕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 온 힘은 바로 독창적인 우리 문화 전통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어 전통 문화에 대한 墮下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경계하여 서구 문화를 盲目的으로 추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의도한다.

그러나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다른 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16) 박상준, 앞의 논문, p.40. 참조.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족의 우월감에 사로잡혀 우리 민족 문화를 歪曲하여 주장하거나 편협한 國粹主義에 빠져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업신여기거나 이를 배척하는 것은 민족문화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다.

반면,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힌다.”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단일 언어와 민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언어·문화와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異質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바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한문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人間像인 인간존엄, 평등, 자유 등과 같은 민주적 이상을 지지하는 평등 지향적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문과의 교육 내용에서도 다문화 교육의 내용이 많으며, 그 교육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한문과 교육 내용은 ‘仁’과 같은 인간존중 사상과 이를 구현하는 ‘忠恕’, 나아가 만인평등의 경지인 ‘大同’ 세계의 이상을 구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서 ‘仁’은 자기와 자신의 민족만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는 選民意識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피부색이나 민족, 언어 등의 다름과 학력과 학벌, 정치·경제적 능력의 차이, 障礙와 非障礙의 差別이 없이 공존과 협력하는 人類愛의 實現이며, 문화적 多樣性을 최대한 寬容하고 존중하는 정신이다. 이는 현대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인류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차별을 하지 않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은 자

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육적 이상이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함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 민주사회의 교육적 이상이며,¹⁷⁾ 한문과 교육에서 추구하는 이상이기도 하다.

둘째,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서 외국에서 이주하여 성공한 사례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외국에 나가 다른 문화에 적응하여 성공한 사례를 교육의 내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을 받아들인 기록은 『三國遺事』를 비롯한 史書에서 확인할 수 있다. 『三國遺事』의 신라 「赫居世 三十八年」條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秦나라 戰亂의 고통을 피해 동쪽으로 이주하여 온 자들이 馬韓과 辰韓에 거쳐하였으며, 일본인 瓠公도 바다를 건너 와 살았다고 한다.¹⁸⁾

또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의 좌선봉장으로 來侵하였으나, 조선의 문물이 뛰어난을 흠모하여 귀순한 金忠善(1571-1642)과 임진왜란 때 明나라 神宗의 命을 받들고 참전하여 큰 공을 세운 후 우리나라에 정착한 賈維鏞, 네덜란드 사람으로 1627년(인조 5년)에 제주도에 漂着되어 조선의 여인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둔 박연(朴淵/朴燕, 1595-?) 등은 외국인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우리 국민으로 편입되어 정착에 성공한 경우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이주하여 우리 국민으로 편입된 역사적 사실과 우리 국민이 외국에 나가 정착하였던 新羅

17)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 총론』, 2007, pp.125-126.

18) 『三國遺事』, <赫居世 三十八年>, “春二月 … 前此 中國之人 苦秦亂 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 寢盛 故馬韓忌之 有責焉 瓠公者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繫腰 渡海而來 故稱瓠公.”; 『三國遺事』,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適韓國 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十二小國 各萬戶 稱國 又崔政遠云 辰韓本燕人避之者 故取涿水之名.”

坊과 같은 사실들을 한문과의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의 갈등 문제의 미연 방지와 극복을 위해 우리 민족의 배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내용과 인간의 존엄성, 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排除하여야 한다.

한문과의 교육 내용은 인권 존중의식과 평등 의식이 主流를 이루지만 내용 가운데 兩性平等과 人權에 反하는 내용도 일부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勞心者治人, 勞力者治於人”이라는 내용은 육체노동을 貶下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夫者唱 婦者隨”, “妻賢 夫禍少”, “男兒一言 重千金” 등과 같은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 내용이라 할 수 있다.¹⁹⁾ 나아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구성원의 2% 이상이 외국인과 혼혈인으로 구성된 현실에서 한문과의 교육에서, 우리나라는 ‘單一民族’으로 ‘한 언어와 한 핏줄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한문과 교육에서 ‘單一民族’을 강조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주류 구성원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일겠지만 우리 사회의 소수 구성원인 이주민과 그들의 후예인 혼혈인들을 차별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참여보다는 더 큰 갈등을 조장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사회에서 교육은 固定觀念과 偏見의 解消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異質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異質 집단들은 각자 자신이 처해있는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적응해 온 생활 방식을 固守하며 자신과 다른 대상에 대하여 편견을 갖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우리사회의 주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진리로 교육되어온 ‘單一民族’이라는 사례는 순혈주의에 기초한 排他主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개방화 사회로 변화하는 시대적 호

19) 李東宰,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中等學校 漢文 教科書 개발 方向」, 『漢字 漢文教育』 제19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 p.153. 참조.

를 고려할 때, 기존의 단일민족주의는 인종, 민족,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한문과 교육에 있어서도 기존의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同質性을 추구하는 교육을 止揚하고, 문화적 相對主義, 差異, 多樣性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에 따라 각각 다른 목표와 내용, 방법을 달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즉 현재 다문화 교육의 대상은 크게 문화의 동질성을 가진 내국인과 문화의 이질성을 가진 外來人으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의 한문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닌 內國人을 대상으로 移住民 문화의 多樣性과 異質性을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V. 結論

최근 한국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유입된 외국인 등으로 총인구의 2%를 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이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이주민에 국한된 정책으로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미흡한 점이 많다.

다문화란 소수민족이 가진 다양한 고유문화가 지배문화로 통합되기 보다는 각각의 고유성을 그대로 간직하며 공존하는 것을 말한다. 다문화교육은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寬容教育이며, 사회의 그릇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대항하는 것을 교육하는 人權教育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문과 교육과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한문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의 準據는 한문과의 교육목표에서 찾을 수 있다. 제7차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가운데,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는 인권 교육, 반전평화교육, 생태환경교육 등과 연관성을 가지며, “한자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는 複數文化 教育, 國際理解 教育, 反偏見 教育, 世界化 教育 등과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문과 교육이 전통문화 교육에 초점을 두어, 민족의 동질성과 전통문화의 固守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단일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다른 인종이나 민족, 문화를 차별하고 排斥하는 정서가 강했으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교육목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他民族, 他文化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문과 교육을 통한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유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첫째, 한문과 교육 내용이 ‘仁’과 같이 인간존중 사상과, 이를 구현하는 ‘忠恕’와 같은 寬容교육을 통해 민주적 이상을 지지하는 평등 지향적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우리의 역사에서 다른 민족 구성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이주하여 공존한 사례와 金忠善과 賈維鎰같은 외국에서 이주하여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 우리 민족의 구성원이 외국에 나가 다른 문화에 적응하여 성공한 사례를 교육의 내용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한문과의 교육 내용은 인권 존중의식과 평등 의식이 主流를 이루지만, “夫者唱 婦者隨”과 같이 兩性平等에 어긋나고, ‘單一民族’같이 우리 민족의 배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내용과 인간의 존엄성, 평등에 어긋나는 내용은 排除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재의 한문과를 통한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아닌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주민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이해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參考 文獻>

『三國遺事』, 명문당, 2000.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 교육과정 : 총론』, 200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과목의 교육과정』, 2007.

김선미·김영순, 『다문화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2008.

김용신,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의 다문화 개념 분석」, 『사회과 교육』 제47권 2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박광재,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 교육 수업 방안」, 『윤리교육철학』 제7집, 2008.

박상준, 「다문화사회의 시민성 육성을 위한 초등 사회과 전통문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사회과교육』 제47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다문화 사회의 이해』, 동녘, 2008.

윤여탁, 「다문화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제22집, 한국어교육학회, 2008.

이동재,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中等學校 漢文 教科書 개발 方向」, 『漢字 漢文教育』 제19집, 韓國漢字漢文教育學會, 2007.

Banks J. A · 모경환 외 譯, 『다문화 교육 입문』, 아카데미프레스, 2008.

H. Douglas Brown 저·이홍수 외 역, 『외국어 학습·교습의 원리』, Pearson Education Korea, 2001.

Abstract

*A Study o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Teaching methods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 Lee Dong Jae**

Multicultural society means a society where minorities' diverse native cultures are not absorbed into the dominant culture but preserve their originality and coexist with other cultures. Multicultural education is education for respecting myself and being considerate of others, and is human right education for resisting wrong prejudices and fixed ideas and making peaceful decisions. Thus, it is closely related to classical Chinese education.

The ground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classical Chinese education can be found in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Until now, however, classical Chinese education has been focused on traditional culture, aiming at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homogeneity and traditional culture and, for this reason, it has paid little attention to other races and cultures although one of its educational goals was the understanding of other cultures. Accordingly,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classical Chinese education should pay attention to three point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classical Chinese education should be based on philosophies respecting human beings like 'In (virtue),' and focus on the realization of democratic ideals through tolerance education like 'Chungseo (faithfulness and forgiveness).'

Second,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expanded by including successful Korean immigrants like Kim Chung-seon in Korean history who moved to a foreign country and achieved success or adapted themselves to

*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Sino-Korean Classics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rea / leedj@kongju.ac.kr

foreign culture successfully.

Third, the contents of the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are mainly about human rights and equality, but some of them deal with gender equality and suggest the exclusive superiority of Korean people as a racially homogeneous nation. Such contents should be excluded.

Furthermore,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the current classical Chinese curriculum should promote the understanding of the diversity and heterogeneity of emigrants' cultures and the coexistence of such culture, targeting native Koreans rather than emigrants.

【Key words】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of traditional culture, respect for human rights, toleranc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18일, 게재확정일 : 12월 5일